

대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규영 · 김윤희†
(부경대학교)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Gyoo-Yeong CHO · Yun-Hee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r providing the basic data to develop SNS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3 university students in B & K cities from 2 to 19 September, 2013 and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21.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 of SNS addiction were average using time daily in weekend($\beta = .116$, $p = .003$), SNS using time per connect($\beta = .156$, $p < .001$), communication motive($\beta = .214$, $p < .001$), non-loneliness motive($\beta = .114$, $p = .010$), social capital($\beta = .127$, $p = .001$), psychological problems($\beta = .381$, $p < .001$). And these factors explained 54.2% of the variance in SNS addic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a need to develop the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SNS addiction for health promotion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SNS, Addiction, Using motive,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problems

I. 서론

2010년 세계미래포럼이 한 해 동안 가장 유행 하였던 10대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1위에 뽑혔다(World Futures Forum, 2011). 2011년 기준으로 SNS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5억 만 명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3천 6백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필두로, 카카오톡은 3천만, 페이스북은 1천만이 이용하고 있어 SNS의 사회에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Yang Chul-Min 2013).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

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 대부분 인맥관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2012). 기존의 인터넷 기반 커뮤니티와 비교해볼 때, SNS는 자신의 관심사와 의견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더 즉시적이고, 개방적이며 관계 맺는 사람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과 실시간 정보전달 및 교환, 대인관계 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가져왔다(Kim Eun-Mi·Lee Dong-Hu·Lim Young-Ho & Jung Il-Kwon 2011; Lee Eun-Ju · Snin Soo-Yun 2011). 그러나 이러한 SNS의 순기능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학업성적 하락 및 기업생산성 감소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3, soohappy@pknu.ac.kr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창의학술연구비(2014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등의 부정적인 영향 등이 나타나면서 SNS 피로 증후군과 SNS 중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2011).

SNS 피로증후군은 SNS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을 일컫는 말로, 정보피로증후군이라고도 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복수의 SNS를 이용하면서 과도한 정보 공유와 인맥 관리 분산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11년 국내 SNS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자의 40%가 소셜미디어 이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Video News Team 2013).

SNS 중독은 과거 인터넷 중독에서 모바일, SNS 등으로 전이되는 사이버 중독의 일종으로 초기에는 생활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SNS를 시작하였다가 점차 명확한 목적성 없이 의존적으로 집착하고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여 본연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단계로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징후인 강박적 이용, 금단증상, 내성, 의존성, 통제력 상실, 불안과 초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2011). Kuss D. J. & Griffiths M. D. (2011)는 SNS 중독이 물질관련 중독처럼 기분변화, 내성, 금단증상, 갈등, 재발의 전형적인 중독 증상의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NS 중독자가 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중독(Facebook Twitter Addiction Disorder, FTAD)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약 3억5천만 명이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SNS 중독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Lee Inn-Sook · Cho Ju-Yeon 2012).

2011년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비롯한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1).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SNS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으

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18세에서 24세로 전체의 98%가 이용하고 있고, 20대의 90.2%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2). 또한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63.1%가 사생활 노출이 너무 많아서 등의 이유로 SNS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Dong-A.com Video News Team 2013). 이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시기에는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이 제한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스마트폰 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SNS를 과다 사용하여 여러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Lee Inn-Sook · Cho Ju-Yeon 2012),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SNS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SNS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볼 때,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Kuss D. J. & Griffiths M. D. 2011; Pfeil U. · Arijan R. & Zaphiris P. 2009; Raacke J. & Bonds-Raacke J. 2008).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SNS의 이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SNS 중독예방에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SNS 중독에 어떤 중재 가능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SNS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의 요인들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뉴미디어 이용 자체가 갖는 몰입적, 사회적 이용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Kuss D. J. & Griffiths M. D. 2011).

SNS 중독과 성별, SNS 이용시간 및 접속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SNS 이용시간이 길고 접속 횟수가 많을수록 중독경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기간은

SNS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Oh Yun-Kyoung 2012). 대다수 연구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중독정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Ryu Hyeon-Suk 2013; Pi Seung-Jung 2013; Pfeil U. · Arijan R. & Zaphiris P. 2009), 일부 연구에서는 남자에게서 더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Raacke J. & Bonds-Raacke, J. 2008) 성별에 따른 SNS 중독정도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고 있어, SNS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전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선호하는 경우에서 SNS를 중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Sussman S. · Leventhal A. · Bluthenthal R. N. · Freimuth M. · Forster M. & Ames S. L. 2011), SNS 이용 동기가 SNS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heldon P.(2008)는 SNS 이용 동기를 관계유지, 시간 보내기, 가상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멋지게 보이기, 동료의식 고취로 구분하였다. 성별에 따른 SNS 이용 동기를 보면 여성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Baker V. 2009), SNS를 이용하는 동기별로 SNS 중독예방 중재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NS 이용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페이스북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격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상에서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SNS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ek Cho-Rong 2012). 사회적 관계가 제공하는 기회와 이익의 합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으로써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으로(Belliveau M. A. 1996),

Ellison N. B. · Steinfiel C. & Lampe C. (2007)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대학생들의 경우 SNS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SNS 이용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페이스북 친구와 사회적 지지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Kim Jung-Hyun · Lee Jong-Eun(2011)의 연구와는 대조되는 결과를 보여, 다른 사람과 소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SNS가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SNS 중독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NS의 문제적 이용이 낮은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 불안 및 심리적 문제 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praggins A. 2009; Wan C. 2009; Koc M. & Gulyagci S. 2013; Hwang Sung-Wook · Park Jae-Jin 2011). 터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oc M. & Gulyagci S. 2013)에서는 우울 및 불안이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우울 및 외로움은 SNS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Spraggins A. 2009; Oh Yun-Kyoung 2012). 수시로 포스팅되는 SNS 친구들의 새로운 활동들이나 즐거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고 기준 미달이라고 여길 수 있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ria J. K. & Mark D. G. 2011). 또한 SNS와 같은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면대면 만남에 비해 시각적, 언어적 단서들이 감소하고 상호작용에 대해 더 큰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한 개인들이 SNS를 더욱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Erwin B. A. · Turk C. L. · Heimberg R. G. · Fresco D. M. & Hantula D. A. 2004). 그러나 Lee Hae-Young(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에

참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불안과 SNS 중독의 관련성에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작한 SNS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SNS 이용에 따라 개인이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Hwang Sung-Wook · Park Jae-Jin(2011)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심리적 문제점 인식 유형을 중독성,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가식적 표현 충동으로 분류하였고 페이스북 중사용자가 페이스북 경사용자에 비하여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다각도 측면의 SNS 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본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SNS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NS 이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률이 높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중재전략을 펼치는데 필요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Kuss D. J. & Griffiths M. D. 2011).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SNS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SNS 중독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탐색적 연구는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변인들에 대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나 SNS 중독의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SNS 이용 동기, 사회적 자본, 우

울, 사회불안,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측면에서 규명함으로써 SNS 중독을 실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의 차이를 파악하고, 둘째, 대상자의 SNS 중독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대상자의 SNS 중독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와 Y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중 SNS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크기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다. G*Power(3.1.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05$, 중간정도인 효과크기=.10, 검정력=.90, 독립변수 15개를 고려했을 때 261명으로 산정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3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미비한 경우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363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도구

가. SNS 중독

SNS 중독은 Oh Yun-Kyoung(2012)이 Young (1996)의 인터넷 중독척도와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2005)가 만든 인터넷 중독 척도인 K척도에서 SNS와 관련성이 적은 문항을 삭제하고 유사질문들을 통합해 만든 척도이다. 모두 11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Yun-Kyoung(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2였다.

나. SNS 이용 동기

SNS 이용 동기는 Oh Seung-Seok(2010)이 만든 페이스북 이용 동기 척도에 Sheldon P. (2008)이 개발한 페이스북 이용 동기 척도 중 외롭지 않기 요인을 더해 만든 Ryu Hyeon-Suk(2013)의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2인이 검토하여 SNS 이용 동기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SNS 이용 동기 척도는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 4문항, 정보탐색 동기 4문항, 엔터테인먼트 동기 4문항, 자기 확인의 동기 3문항, 외롭지 않기 동기 2문항의 총 5개 요인 17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인맥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기획, 자원 등의 총합이라는 온라인 사회적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Lei Z. J.(2012)이 개발한 사회적 자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였다.

라.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는 Hwang Sung-Wook · Park Jae-Jin(2011)이 SNS 이용자의 심리적 문제점 인식의 유형을 페이스북 중심으로 분석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유목화 된 문제점 인식의 유형은 중독성, 오프라인 사회성의 결여,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가식적 표현 충동의 일곱 가지로 분류되었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많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Hwang Sung-Wook · Park Jae-Jin(2011)의 연구

에서 각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중독성 .90, 오프라인 사회성의 결여 .86, 상대적 박탈감 .87, 소외감 .85,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 .85,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73, 가식적 표현 충동 .79였고,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중독성 .88, 오프라인 사회성의 결여 .85, 상대적 박탈감 .84, 소외감 .85,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 .87,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71, 가식적 표현 충동 .82였다

마.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정도를 말하며, Mattick R. P. & Clarke J. C. (1998)가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를 Kim Hyang-Sook(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 치기가 힘들다' 등의 19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Hyang-Sook(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바. 우울

우울은 Kim Kwang-Il · Kim Jae-Hwan · Won Ho-Taek(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Kim Kwang-Il · Kim Jae-Hwan · Won Ho-Taek(198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자료수집방법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연구원이 해당 2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학과를 편의표출하여 해당학과의 해당교수에게 허락을 얻어서 강의 후에 강의실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 보장 그리고 학문적 목적이외의 이용금지와의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연구원이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조사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양측검정하였고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인 SNS 이용 동기, 사회적 자본,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 우울, 사

회불안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의 차이는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고, 셋째, SNS 중독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넷째,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학생이 74.6%였고 2학년이 38.5%로 가장 많았다.

<Table 1> SNS Addiction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NS Addiction	t or F	p
			M±SD		
Gender	Female	271(74.6)	20.02±5.68	1.946	.046
	Male	92(25.4)	17.80±5.30		
Grade	Freshman	42(11.6)	19.73±5.60	1.909	.128
	Sophomore	140(38.5)	20.65±5.44		
	Junior	116(32.0)	19.34±6.02		
	Senior	65(17.9)	18.87±5.21		
Average using time in week*	<3hours	261(71.9)	19.32±5.56	-2.611	.008
	≥3hours	102(28.1)	21.08±5.66		
Average using time in weekend**	<4hours	256(70.5)	18.94±5.40	-4.624	<.001
	≥4hours	107(29.5)	21.86±5.66		
Using time per SNS connetc	<15minutes	206(56.7)	18.07±5.01	-7.156	<.001
	≥15minutes	157(43.3)	22.08±5.61		
Number of SNS	<3	214(58.9)	19.24±5.72	-2.310	.021
	≥3	149(41.1)	20.62±5.41		
Number of SNS friends	<100	77(21.2)	17.28±5.39	-4.545	<.001
	≥100	286(78.8)	20.48±5.51		

*M±SD = 3.07±2.59 **M±SD = 3.74±3.02

주중 일 평균 SNS 이용시간이 평균 3.07±2.59 시간으로 3시간 미만인 경우가 71.9%였으며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은 평균 3.74±3.02시간으로 4시간 이상인 경우가 29.5%로 나타났다. SNS에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은 15분 미만인 경우가 56.7%였으며 가입한 SNS 갯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41.1%였고 SNS 상에서 친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는 78.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점수 차이를 보면 성별에서 여학생은 44점 만점에 20.02±5.68점이고 남학생은 17.80±5.30점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SNS 중독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46, p=.046$). 학년별에서는 2학년이 20.65±5.44점으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18.87±5.21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학년별로 SNS 중독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909, p=.128$). 주중 일 평균 SNS 이용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는 19.32±5.56점인 반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21.08±5.66점으로 주중 일 평균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SNS 중독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11, p=.008$).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8.94±5.40점이고, 4시간 이상인 경우가 21.86±5.66점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24, p<.001$). SNS에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의 SNS 중독점수는 18.07±5.01점이고, 15분 이상인 경우가 22.08±5.61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156, p<.001$). 가입한 SNS 갯수가 3개 미만인 경우는 SNS 중독점수가 19.24±5.72점, 3개 이상인 경우는 20.62±5.4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10, p=.021$). SNS 상에서 친구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17.28±5.39점, 100명 이상인 경우는 20.48±5.51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545, p<.001$).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SNS 이용 동기를 5개 요인별로 보면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는 16점 만점에 평균 11.08±1.89점이었고, 정보 탐색 동기는 16점 만점에 평균 10.54±2.06점, 엔터테인먼트 동기는 16점 만점에 평균 10.40±2.07점, 자기확인 동기는 12점 만점에 평균 6.46±1.74점, 외롭지 않기 동기는 8점 만점에 평균 4.36±1.40점이었다. 사회적 자본은 44점 만점에 27.81±5.65점이었고,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는 116점 만점에 평균 57.48±13.45점이었으며, 우울은 40점 만점에 평균 20.01±5.79점이었고, 사회불안은 95점 만점에 평균 50.17±12.56점이었으며, SNS 중독은 44점 만점에 평균 19.80±5.6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363)

Variables	Min	Max	M±SD
Communication motive	4	16	11.08±1.89
Information motive	4	16	10.54±2.06
Entertainment motive	4	15	10.40±2.07
Self-awareness motive	3	12	6.46±1.74
Non-loneliness motive	2	8	4.36±1.40
Social capital	11	44	27.81±5.65
Psychological problems	29	107	57.48±13.45
Depression	10	37	20.01±5.79
Social anxiety	19	88	50.17±12.56
SNS addiction	11	39	19.80±5.63

3. SNS 중독과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SNS 중독과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SNS 중독은 SNS 이용 동기인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r=.402, p<.001$), 정보 탐색 동기($r=.246, p<.001$), 엔터테인먼트 동기($r=.558, p<.001$), 자기확인 동기($r=.360, p<.001$), 외롭지않기 동기($r=.48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r=.395, p<.001$),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r=.619, p<.001$), 우울($r=.320, p<.001$), 사회불안($r=.150, p=.004$)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in Variables and SNS Addiction (N=363)

Variables	SNS Addiction	
	r	p
Communication motive	.402	<.001
Information motive	.246	<.001
Entertainment motive	.558	<.001
Self-awareness motive	.360	<.001
Non-loneliness motive	.484	<.001
Social capital	.395	<.001
Psychological problems	.619	<.001
Depression	.320	<.001
Social anxiety	.150	.004

4.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SNS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SNS 중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성별, 주중 일 평균 SNS 이용시간,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 SNS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 가입한 SNS 갯수, SNS 상의 친구의 수와 주요변수인 SNS 이용 동기, 사회적 자본,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 우울, 사회불안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명목척도인 성별, SNS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 가입한 SNS 갯수, SNS 상의 친구의 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5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 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52-0.93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6-7.0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잔차 분석 결과 SNS 중독에 대한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도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정규성과 등분산성도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SNS 중독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2.44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4.2%였다. 대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beta=.381$, $p<.001$),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beta=.214$, $p<.001$), SNS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beta=.156$, $p<.001$), 사회적 자본($\beta=.127$, $p=.001$),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beta=.116$, $p=.003$), 외롭지 않기 동기($\beta=.114$, $p=.010$)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N=363)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p)
Constnat	-2.488	1.283	-	-1.940	.053	.542	72.448 (<.001)
Psychological problems	.160	.018	.381	8.521	<.001		
Communication motive	.580	.125	.214	4.655	<.001		
Using time per SNS connect	1.775	.432	.156	4.112	<.001		
Social capital	.127	.039	.127	3.258	.001		
Average using time in weekend	.215	.071	.116	3.035	.003		
Non-loneliness motive	.457	.177	.114	2.574	.010		

*Dummy variable (0: <15minutes, 1: ≥15minutes)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을 이해하기 위하여 SNS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함으

로써 대학생의 SNS 중독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 SNS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이 주요변수에서는 사회적 자본,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 사회불안, 우울이 대학생 SNS 중독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SNS 중독수준은 44점 만점에 평균 19.80±5.6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Lee Inn-Suk · Cho Ju-Yeon 2012)에서도 평균 19.91 ±6.28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2)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자 10명 중 6명이 SNS 중독성향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SNS 이용을 조절하는 경우는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중재개입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SNS의 중독 개념이 ‘SNS 중독경향성’(Oh Yun-Kyoung 2012; Suh Kyung-Hyun · Cho Sung-Hyeon 2013), ‘SNS 몰입’(Ko Ah-Ra 2012), ‘SNS 중독’(Lee Inn-Suk · Cho Ju-Yeon 2012), ‘모바일 SNS 중독’(Yu Kung-Hsien 2011) 등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측정도구 또한 다양한 실정으로 향후 체계적인 SNS 중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SNS 중독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SNS 중독 진단척도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과 SNS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SNS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SNS 접속률이 높을수록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Sussman S. · Leventhal A. · Bluthenthal R. N. · Freimuth M. · Forster M. & Ames S. L. 2011; Lee Inn-Suk · Cho Ju-Yeon 2012; Oh Yun-Kyoung 2012)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NS 이용시간이 SNS 중독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

별이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된 Lee Inn-Suk · Cho Ju-Yeon(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남학생이 25.4%에 불과하여 성별 특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대상자의 성별 분포가 유사하게 분포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동기인 대인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자기 확인, 정보탐색, 외롭지 않기 중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경우와 외롭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SNS 중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페이스북 이용 동기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Ryu Hyeon-Suk(2013)의 연구에서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자기확인, 엔터테인먼트, 정보탐색, 외롭지 않기 요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SNS 이용 동기에 따른 SNS 중독을 파악한 다른 선행연구(Subrahmanyam K. · Reich S. M. · Waechter N. & Espinosa G. 2008)에서도 SNS를 이용하는 가장 큰 동기가 사회적 목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가 SNS 중독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Oh Yun-Kyoung 2012)에서 SNS 중독경향성을 점수가 높은 상위 30%인 집단에서 점수가 낮은 하위 30%인 집단보다 외로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롭지 않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동기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일부 대학생들은 SNS를 대면접촉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어(Kujath, C. L. 2011) SNS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경우가 SNS에 중독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많이 할수록 SNS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결합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되며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지지보다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합적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사이에 있는 강한 결합을 의미한다(Putnam R. D. 2000). SNS는 많은 구성원간의 사회적 연대 때문에 저절로 커지는 잠재적인 네트워크로 점점 그 크기가 커질 수 있다(Reich S. M. 2010).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친구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Ellison N. B. Steinfiel C. & Lampe C. 2007). 일부 선행연구(Steinfeld C. Ellison N. B. & Lampe C. 2008)에서는 SNS 이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의 이점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NS를 통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가 쉽다는 점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SNS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중독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가 페이스북의 경사용자보다 중사용자에게 있어 페이스북 이용에 대한 집착, 비접속상태의 불안감으로 설명되는 중독성 및 상대적 박탈감 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Hwang Sung-Wook · Park Jae-Jin(2011)의 연구와 본 연구가 같은 맥락을 보였다. 그리고 Suh Kyung-Hyun·Cho Sung-Hyeon(2013)은 사회적 고립감, 무력감, 무의미감 등의 소외감이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한 SNS가 역설적이게도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성인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육 및 캠페인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불안은 SNS 중독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이 높아 실제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덜 하는 사람이 온라인에서도 자기주장이나 신념을 개방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Ma M. L. & Leung L. 2005)가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회불안과 연합된 불쾌한 정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면대면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Caplan, S. E. 2002)도 있어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사회불안과 SNS 중독의 관계는 추후 연구가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Lee Inn-Suk · Cho Ju-Yeon (2012)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반면, 우울이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Oh Yun-Kyoung 2012)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ng Seok-Ki · Ko Soo-Hyun 2012)와 함께 인터넷 중독 집단일수록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Young K. S. 1996)를 고려해볼 때,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울과 SNS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SNS 이용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동기, 사회적 자본 및 SNS 이용에 따른 심리문제, 사회불안, 우울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Kuss D. J. & Griffiths M. D. 2011)에서 자기제시 동기가 강하고, 외향성이 강하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SNS 중독에 빠질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격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SNS 중독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 대학생이 주말 일 평균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SNS 1회 접속 시 평균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대면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외롭지 않기 위하여 SNS를 이용할수록, 사회적 자본과 SNS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가 심할수록 대학생의 SNS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SNS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을 잘 고려하여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SNS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SNS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역할극 등으로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엔터테인먼트 등의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체 활동 즉, 동아리 활동, 신체활동 등을 적용함으로써 SNS 이용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SNS 사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가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 개별접근을 강화하는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SNS 중독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전략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한 2개 도시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고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변수간의 정확한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점과 대학생의 SNS 중독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필요한 근거기반 중재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연구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SNS 중독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표준화된 SNS 중독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진단기준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격요인을 포함한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의 요인들이 SNS의 중독에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총체적인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k, Cho-Rong(2012).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courage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Facebook use and Loneli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 Baker, V.(2009).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2(2), 209~213.
- Belliveau, M. A.(1996). Social capital of the top: effects of social similarity and status on CEO compens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6), 1568~1593.
- Caplan, S. E.(2002).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 of a theory-based cognitive measurement instru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18, 553~575.
- Daria, J. K. & Mark, D. G.(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Dong-A.com Video News Team(2013). First Reason to Feel Fatigue in University Students..What Is Second One?,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308020006&category=0005>, Dong-A Ilbo Newspaper on Aug 2013.

- Ellison, N. B. · Steinfield, C. & Lampe, C.(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Erwin, B. A. · Turk, C. L. · Heimberg, R. G. · Fresco, D. M. & Hantula, D. A.(2004). The internet: home to a severe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5), 629~646.
- Hwang, Sung-Wook · Park, Jae-Jin(2011). Facebook, What's the Proble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sychological Problems,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Education* 91, 68~95.
- Kang, Seok-Ki · Ko, Soo-Hyun(2012).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late adolescence undergraduate on cyber addictio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43~168.
- Kim, Eun-Mi · Lee, Dong-Hu · Lim, Young-Ho & Jung, Il-Kwon(2011). SNS Myths and The Real Revolution: The Evolution of 'Talk Play Love', Corporation Nanam.
- Kim, Hyang-Sook(2001). Memory Bias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Jung-Hyun · Lee, Jong-Eun(2011). The Facebook Paths to Happiness: Effects of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and Self-Pres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6), 359-364.
- Kim, Kwang-Il · Kim, Jae-Hwan & Won, Ho-Taek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Jungang Institute, Seoul.
- Ko, Ah Ra(2012).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Network Service(SNS) Users' Flow and Addi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Kyung Sung University.
- Koc, M. & Gulyagci, S.(2013). Facebook addiction among Turkish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sychological health, demographic, and usage characteristics, *Cyber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4), 279~284.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1). Secondary research of smartphone using status,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eoul.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2). Final Report of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eoul.
- Kujath, C. L.(2011). Facebook and myspace: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face-to-face intera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 75~78.
- Kuss, D. J. & Griffiths, M. D.(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ee, Eun-Ju · Shin Soo Yun (2012). Are they talking to me? cognitive and affective effects of interactivity in politician's twitter communic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10), 224-229.
- Lee, Hae-Young(2012).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on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i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Instant Messag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Korea University.
- Lee, Inn-Suk · Cho, Ju-Yeon(2012).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trends in SNS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4(5), 2623~2633.
- Lei, Z. J.(2012). Effect of social network service on the social capital,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21(3), 163~186.
- Ma, M. L. & Leung, L.(2005). Unwillingness-to-communicate, perception of the internet and self-disclosure in ICQ, *Telematics and Informatics* 23, 22~37.
- Mattick, R. P. & Clarke, J. C.(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2005).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Seoul.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2011). Third Standardization of Korean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Seoul.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2012).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National

-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2). Youth and SNS communi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 Oh, Seung-Seok(2010). A Study on the Uses and Gratifications of Twitter and Facebook,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 Oh, Yun-Kyoung(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Korea counseling university.
- Pfeil, U. · Arijan, R. & Zaphiris, P.(2009). Age differences in online users in MySpa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3), 643~654.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Schuster.
- Raacke, J. & Bonds-Raacke, J.(2008). MySpace and facebook: applying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to exploring friend-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1, 169~174.
- Reich, S. M.(2010).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Space and facebook: A mixed-methods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 688~705.
- Ryu, Hyeon-Suk(201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Motives for Facebook on SNS Addic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Catholic University.
- Sheldon, P.(2008). Student favorite: Facebook and motives for its us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3(2), 39~53.
- Spraggins, A.(2009). Problematic Use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for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redictors, and Association with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Florida.
- Steinfeld, C. · Eliison, N. B. & Lampe, C.(2008).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34~445.
- Subrahmanyam, K. · Reich, S. M. · Waechter, N. & Espinosa, G.(2008).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by emergi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20~433.
- Suh, Kyung-Hyun · Cho, Sung-Hyeon(2013).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1), 239~250.
- Sussman, S. · Leventhal, A. · Bluthenthal, R. N. · Freimuth, M. · Forster, M. & Ames, S. L.(2011). A framework for specificity of the addi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399~3415.
- World Futures Forum(2011). 10 Keywords of 2011 in Korea Society are 'FTA and Ahn Chul-Soo', <http://wff.or.kr/wff/>, World Futures Forum on Dec 2011.
- Yang, Chul-Min(2013). 600,000 People Facebook in 4 Months.<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301/e20130113173808117720.htm>, Seoul Economic Newspaper on Aug 2013.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 173~177.
- Yu, Kung-Hsien(2011). A Study on the Use Gratification and Addiction of the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 Centered on Twi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f Dongguk University.

-
- 논문접수일 : 2014년 07월 1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9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9일